

설레인다, 영암 F1

D-7, 열기 고조...티켓 절반 팔려 외국인 1만명 등 20만명 찾을 듯

지구상 최고의 스피드 축제인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주장 주변 목포·영암 일대가 대회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F1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스피드 축제와 대회 기간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 위해 전남을 찾는 인파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선 경기가 열리는 15일에는 7만 명이 경주장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결승전이 치러지는 16일엔 10만명이 몰릴 것이라는 게 조직위 전망이다.

국내 최초 '그레이트 A'서킷이 지난 4일 준공승인을 받아 '미허가 준공 시설'의 오명을 벗게된다. 불만족스러웠던 교통·숙박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도 티켓 판매량 증가

로 이어지는데 한몫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체 16만장의 티켓 중 50%가 팔려나간 것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

전세기와 일본 고속여행선 등으로 13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도 속속 예약을 마쳤다. 조직위는 1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경주장과 전남 관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F1 경주장으로 가는 구간에 꽃길(43km)을 조성하는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주장으로 연결되는 목포·영암 등에 대회 개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과 홍보탑, 배너 등 1000개를 설치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는 전략이다.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2만5000명

을 수용할 수 있는 경주장 내 상설서킷 구간에서 열리는 'K-팝(POP) 콘서트'에는 한류 열풍을 이끄는 국내 유명 스타들이 대회 분위기를 띄운다.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티아라, 다비치, FT아일랜드, 레인보우 등 20개 최고 아이돌 그룹이 출연한다.

결승전이 열리는 16일에는 오후 12시10분부터 공군 블랙이글팀의 축하 공연(5분)이 열리고 1시45분부터 20분간 '한국의 바다축제'라는 주제의 '그리드 이벤트'도 메인그랜드스탠드 앞에서 진행된다. 군악대·의장대·인라인동호회·비보잉 공연·태권도·상모놀이 등 출연진만 400여명에 달한다.

목포 평화공원 광장 및 남약신도시 일대에서도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13일 오후 7시부터는 남약신도시 분수광장에서 '가을밤의 락 콘서트'와 버블쇼, 경주장 주변인 목포 하당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14일부터 이틀간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김지불기자 dok2000@kwangju.co.kr



등불 밝힌 대인시장 시장 속 예술 난장인 '대인예술 아시장이' 펼쳐진 6일 광주 대인시장 곳곳에 700여 개의 등불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오는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고, 예술품을 사고 팔 수도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원순 무소속 출마 확정 박근혜 선거지원 공식화

서울시장 보선 경쟁 본격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나경원 후보 지원 방침을 밝히고 야권에서는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권과 범야권 간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은 이날 조계과 통합선대위를 출범시켰으며 야권도 빠르면 7일 범야권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서울시장을 향한 여야 경쟁이 본격화됐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 박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10·26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판에 미칠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나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으나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박원순 후보의 동반자로 불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선거지원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가 '박근혜-안철수 대립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원순 후보는 각계의 민주당 입당 여부를 고사하고 무소속 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날 박 후보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후보가 된 후 가장 큰 부담이 민주당 입당 여부였고 주변의 압력도 컸을 것"이라며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를 해방을 시켜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말 해방된 느낌이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아직도 충분히 결심을 못 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굿바이, 스티브 잡스

헤장암 사망...전세계 애도 물결

'혁신의 아이콘(icon)'이자 이 시대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로 칭송받아온 애플의 공동창업주이자 전 CEO인 스티브 잡스가 5일(미국 현지시간) 영면했다. 향년 56세. <관련기사 5면>

애플은 이날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오늘 사망했음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스티브의 영명함과 열정, 에너지가 멈추지 않는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풍부해지고 향상됐다.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했다"고 애도를 나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로렌과 3자녀가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도 딸

이 하나 있다. 유족은 이날 "스티브가 오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잡스는 2004년 헤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2009년 간이 수술까지 받는 등 애플의 혁신을 주도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긴 투병생활을 했으나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 건강 악화로 올해 초 병가를 낸 데이이 지난 8월에는 CEO직에서까지 물러났다.

/연합뉴스



경기 보고 K-POP 즐기고... 젊은이들 몰려온다

F1경기 전국 대학생 2000명 중고생 4000명 방문

젊은이들이 영암으로 몰리고 있다. 짜릿한 스피드 축제인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즐기려는 전국 대학생들과 10대 중·고등학생들이다.

6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보기를 위해 전남을 찾는 전국 대학생만 졸업자 2000명이 넘는다.

홍익대와 한양대 등 수도권에서만 13개 대학에서 800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전이 치러지는 토요일인 15일부터 경주장을 찾아 먹고 자며 짜릿한 스피드 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특히 16일 F1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K-POP 콘서트, 록 페스티벌 등의 공연이 자정까지 이어져 분위기가 무르익

는다면 밤샘 축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홍익대생 200명은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장을 찾기로 했다. 이들은 캠핑장에 짐을 풀고 'K-POP' 콘서트와 목포 하당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등을 즐긴 뒤 일요일 결선 레이스를 관람한다. 경주가 끝난 뒤에는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양대와 중부대, 동덕여대도 이미 중간 고사에 들어갔거나 시험이 임박했지만 학생들 상당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스포츠축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며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서는 17개 대학 1000명의 대학생이 15일부터 경주장 일대에서 모터스포츠 축제를 즐긴다. 외국

인 대학생 250여명도 F1 경주와 전남의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예약했다.

10대 중·고등학생들도 가세하고 있다. 목포지역 중·고생 4000명은 15일 예선 경기를 지켜본 뒤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20개팀의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K-POP 콘서트를 관람할 계획이다. 좋은 자리를 찾아 이른 줄서기도 볼사할 태세다.

/김지불기자 dok2000@kwangju.co.kr

가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학 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2011년 영산강길 걷기대회

내일 09시30분 나주향포도배선착장 문의 062)220-0541

아리따운 내 가슴 사랑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한국유방건강재단 AMOREPACIFIC CORPORATION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동시 실시

종목 10Km / 5Km

참가비 10,000원 ㉠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클릭
하위 메뉴 '사랑마라톤 참가신청'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신청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카프

▶ 후원 | 한국유방암학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 협찬 | HERA, 케토툰, 르까프